

**매일경제**

# 10분이면 갓구운 빵...우리집은 베이커리

기사입력 2020-04-26 17:22

‘집콕’늘며 냉동베이커리 인기  
에어프라이어로 간편하게 조리

시장규모 매년 50%이상 성장  
신세계·CJ·롯데제과·아워홈  
식품업계 제품 출시 잇따라



신세계푸드 ‘시그니처 치즈케이크’.

30대 직장인 임선영 씨는 최근 생일을 맞은 지인을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코너를 살피다가 '냉동 케이크'를 발견했다. 빵을 얼려 먹는다는 것이 다소 생소했지만 따뜻한 커피와 함께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 치즈케이크 하나를 주문했다. 임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건네주기 어려워 집 앞으로 배송되는 제품을 구입했다"며 "선물을 받은 지인이 '치즈케이크를 살짝 차갑게 먹으니 느끼하지

않고 개운했다'고 말해 뿌듯했다"고 말했다.

에어프라이어가 각 가정에서 필수 가전제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10~15분 정도의 간단한 조리만으로 갓 구워 낸 듯한 빵을 즐길 수 있는 냉동 베이커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냉동 베이커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로드숍 베이커리보다 가격이 20~30% 저렴하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푸드의 베키아에누보 냉동 케이크는 이달 들어 일일 판매량이 지난 1월 대비 257%가량 증가했다. 일반적인 급속 냉동 공법과 달리 해동한 뒤에도 식감과 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썰었을 때 쉽게 부서지지 않는 독자 제조법을 개발한 것이 주효했다. 굳이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장소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도 소비자 만족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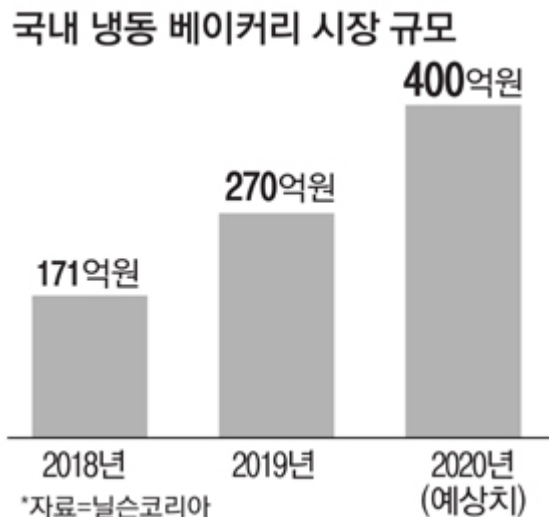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가장 인기 있는 치즈케이크의 경우 뉴욕 정통 스타일로 엄선된 원료만 사용해 치즈의 깊은 맛을 살렸다"며 "전문점 수준의 프리미엄 디저트를 집에서 즐기기를 원하는 수요 덕분에 냉동 케이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 '고메 생지 후랑크페스츄리'.

완제품 형태인 케이크뿐만 아니라 냉동 RTB(Ready to Bake) 제품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크루아상과 와플을 결합한 '크로플'이 인기를 얻으면서 냉동 생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곳은 CJ제일제당이다. CJ제일제당의 고메 베이커리는 식사 대용의 베이크와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생지로 구성돼 있다. 베이크는 바삭한 페이스트리에 불고기, 각종 야채, 치즈를 담은 '불고기 페스츄리 베이크'와 치킨, 치즈를 넣고 크림 소스로 맛을 낸 '치킨 페스츄리 베이크' 등 2종이다. 빵 반죽을 급속 냉동한 생지는 '크로와상' '후랑크페스츄리' '플레인스콘' '크림치즈파이' '애플턴오버' 등 5종이다.

무엇보다 고메 베이커리는 CJ제일제당의 차별된 제분·발효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에어프라이어 간편 조리해 최적화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빵의 수분 함량을 높여 촉촉한 식감을 살린 덕분에 CJ제일제당은 이달 고메 베이커리 매출이 전월 대비 2배 이상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 출시된 롯데제과의 냉동 베이커리 브랜드 '생생빵상회'도 지난달 누적 판매량이 7만6000개를 넘어섰다. 생생빵상회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먹는 발효 냉동 생지 4종, 전자레인지로도 조리 가능한 간식용 조리빵 3종 등으로 구성됐다.

아워홈도 지난해 2종에 이어 올해 3종의 냉동 베이커리를 잇달아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에어 허니버터브레드'와 '에어 크로크무슈'는 월평균 매출이 12%씩 증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업계에선 냉동 베이커리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이를 공략하기 위한 식품업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냉동 베이커리 시장 규모는 2018년 171억 원에서 지난해 270억 원으로 70%가량 성장했다. 올해는 4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베이커리 시장에서 냉동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0%에 못 미친다"며 "걸음마 단계인 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심희진 기자]

▶네이버 메인에서 '매일경제'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매콤달콤' 구독 ▶'매일경제' 바로가기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09&aid=0004564135>

---